13-04 [통권 514호] 2013. 02. 14.

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

# VIP 리포트

## ▮청년 취업,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 높다

## : 20-30대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분석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
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://www.hri.co.kr로 주시기 바랍니다

현대경제연구원

발 행 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 행 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231 Fax (02)2072-6249
Homepage. http://www.hri.co.kr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□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□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.
□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31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 목 차

■ 청년 취업,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 높다

: 20-30대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분석
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청년 취업인식 조사의 필요성 ····· 1

2.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분석 결과 ····· 2

3. 시사점 ····· 15

## 청년들의 취업 인식 조사 필요성

| | |
|---|---|
| 심각한 청년 실업률 | - 국내 실업률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,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<br>- 따라서 청년들이 현재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, 그들의 취업과 관련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|

##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분석

| 구분 | 특징 |
|---|---|
| 취업준비 및 관련 행동 | **- 중소기업을 취직하겠다는 취업준비자는 10명 중 2명(23.6%)에 불과**<br>· 특히, 4명 중 1명(24.1%)은 중기 회피 이유를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응답<br>**- 취직준비 위해 월 약 27만원 투자, 희망 대졸 초임 연봉은 약 2790만원**<br>**- 취업준비 자금은 본인 해결이 많으나, 부모 도움 의존도 적지 않음**<br>**- 취업준비자들은 평균 약 30세까지가 취업 한계라고 인식** |
| 취업 관련 인식 | **- (취업경쟁력) 자신의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음**<br>· 자신이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35.5%(낮다는 의견 18.2%)<br>**- (경제적 부담) 취업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음**<br>· 또한, 취업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수<br>**- (취업 의지) 10명 중 8명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싫어함**<br>· 열악한 근무환경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82.1%<br>**- (부모영향력) 4명 중 1명은 부모가 중소기업 취직 반대**<br>· 자신보다 부모가 중소기업의 취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26.3% |
| 청년취업의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 높다 | **- 경제적 부담 적은 사람이 자신의 취업경쟁력도 높다고 인식**<br>· 취업경쟁력 높다는 응답 비율 52.4%(부담 많은 사람은 21.4%)<br>**- 경제적 부담 적은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부모 반대도 더 큼**<br>· 부담적은 사람의 부모 반대는 44.1%, 부담 많다는 사람은 12.1%<br>**- 경제적 부담적은 사람(31.9만원)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(22.3만원)에 비해 비용투자가 많아 경쟁력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 상존** |

##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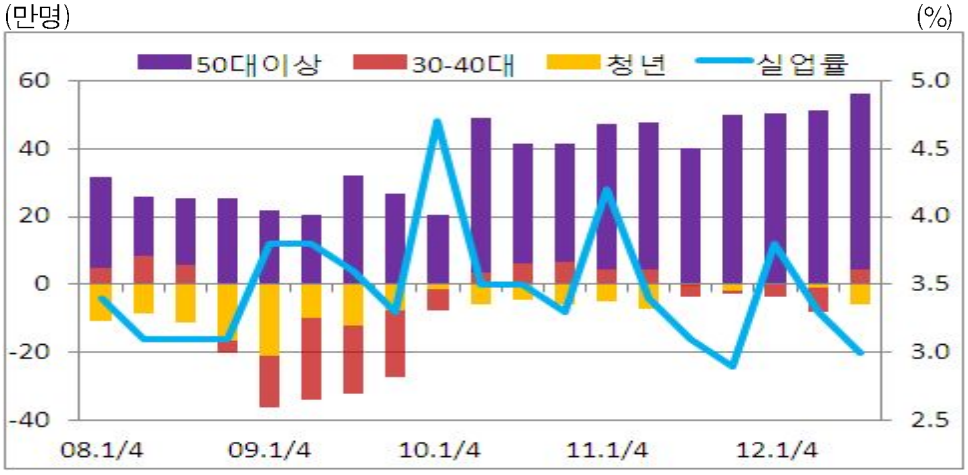
① 상이한 특성이 보이는 청년층의 세분화를 통한 현미경 고용 유도 정책 마련
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복지 평균화 모색
③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다리 활성화 방안 마련
④ 취업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

## 1. 청년 취업 인식 조사의 필요성

- 국내 실업률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,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
  - 전체적인 국내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,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
  - 또한 청년층의 파트타임 증가 등 전체적인 일자리 질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

- 따라서 청년들이 현재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, 그들의 취업과 관련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  - 청년들의 취업준비비용, 취업한계 나이 등 취업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세부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  - 또한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향후 청년실업률 해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각 변수별로 세분화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해야 함

< 연령별 신규취업자 및 실업률 >
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## 2.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

### ○ 조사 개요

- 전국 20-30대 취업준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일반 인식을 살펴보았음
  -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일간이었고, 잡코리아에서 이메일설문으로 진행함

<조사 개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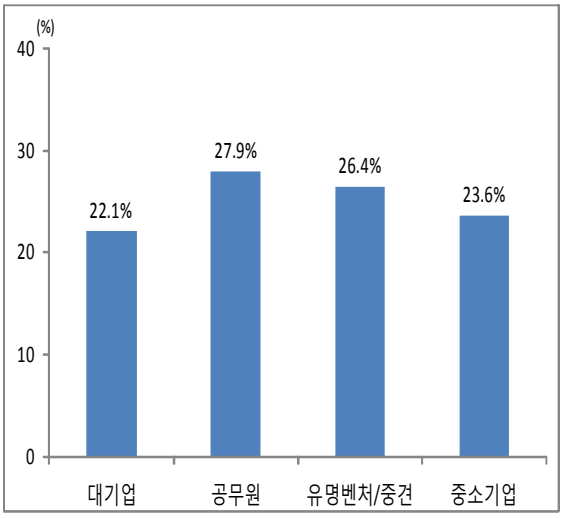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내 용 |
|---|---|
| 조사 대상 | 전국 20-30대 취업준비자 700명 |
| 조사 기간 | 2013.1.7 ~ 1.18 (2주일 간) |
| 조사 방법 | 이메일 설문 |

### 1) 20-30대 청년층이 원하는 목표 직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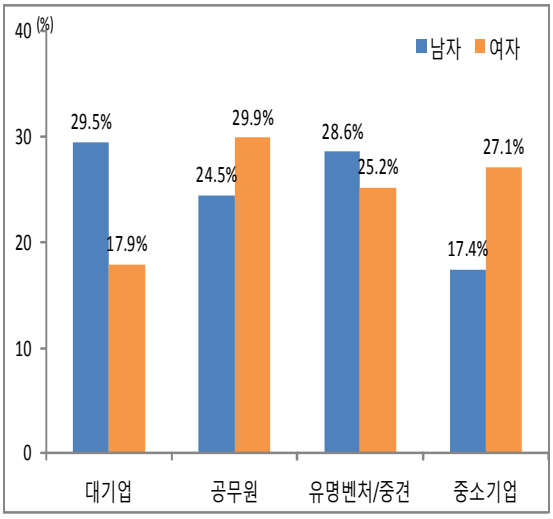
### ○ 취업준비자 10명중 2명만이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응답

-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2명 정도만 중소기업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공무원 27.9%, 유명벤처 및 중견기업 26.4%, 중소기업 23.6%, 대기업 22.1% 순으로 나타남

< 원하는 목표 직장 >




<원하는 목표직장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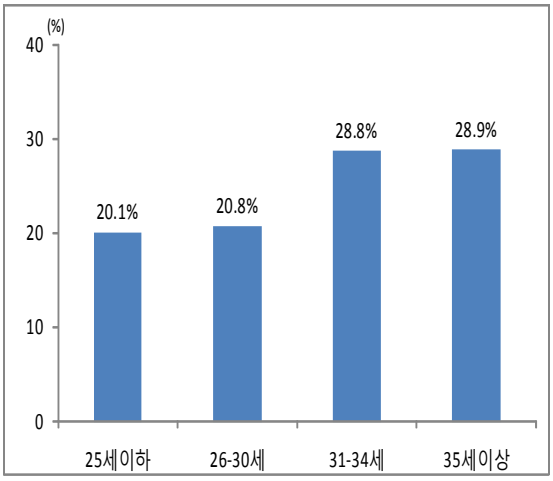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**(성별 비교)** 성별로는 남자는 대기업, 중견기업 순이며, 여자는 공무원,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남
  - 여자는 공무원 29.9%, 중소기업 27.1%, 유명벤처 및 중견기업 25.2%, 대기업 17.9% 순으로 나타남
  - 남자는 대기업 29.5%, 유명벤처 및 중견기업 28.6%, 공무원 24.5%, 중소기업 17.4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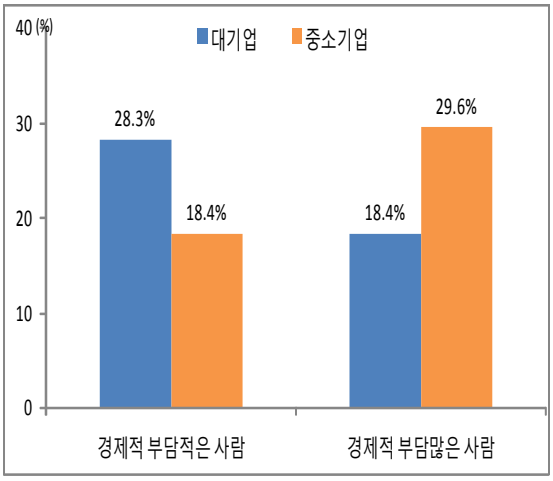
- **(연령별 비교)**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25세 이하는 20.1%, 26-30세는 20.8%인 반면, 31-34세는 28.8%, 35세 이상은 28.9%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
- **(경제적 부담 여부별 비교)**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응답이 낮은 편임
  - 경제적 부담이 적은 사람은 중소기업(18.4%)보다는 대기업(28.3%)에 가겠다는 응답이 많음
  - 반면, 경제적 부담이 많은 사람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목표로 함

<중소기업 선택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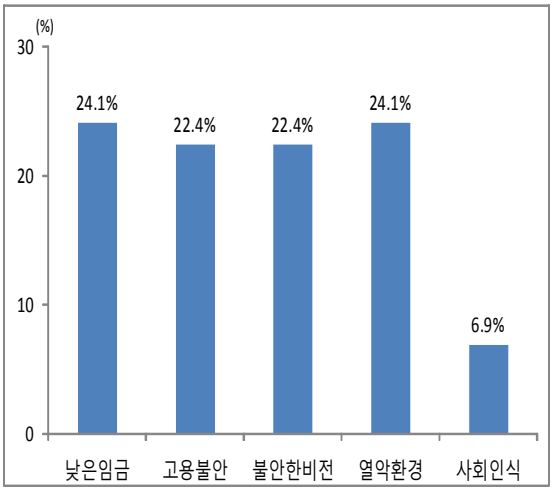

<대기업 및 중소기업 선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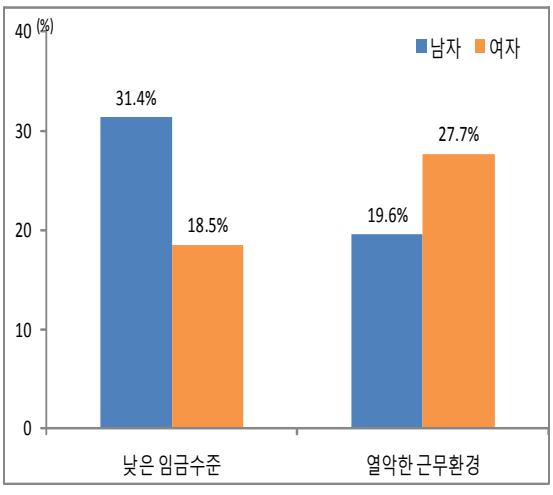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며, 여자의 경우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요 요인으로 선택함
  - 중소기업 회피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(24.1%), 낮은 임금(24.1%), 고용불안(22.4%), 불안한 비전(22.4%) 순서임
  - 한편,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여자(27.7%)가 남자(18.5%)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함

<중소기업 회피 이유>




<중소기업 회피 이유(성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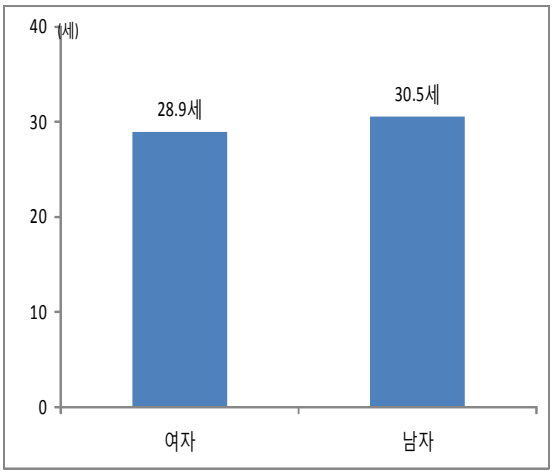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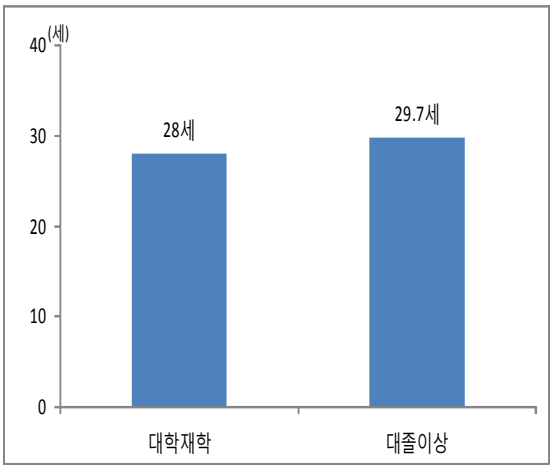
## ○ 평균 약 30세까지를 취업의 한계 나이라고 인식

- 취업준비자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한계 나이를 평균 약 30세까지라고 인식하고 있음
  - 여자(28.9세)보다는 남자(30.5세)가 더 오래까지 취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
  - 한편, 대학 재학 중에는 취업 한계 나이를 28세로 인식하고 있으나, 대학 졸업 이후에는 29.7세로 약간 늘어남

<취직 한계 나이(성별)>




<취직 한계 나이(학력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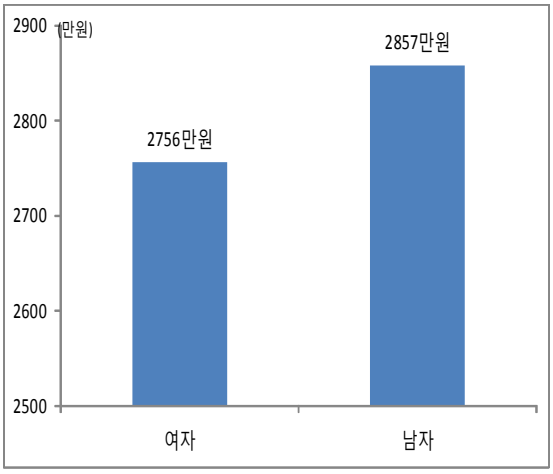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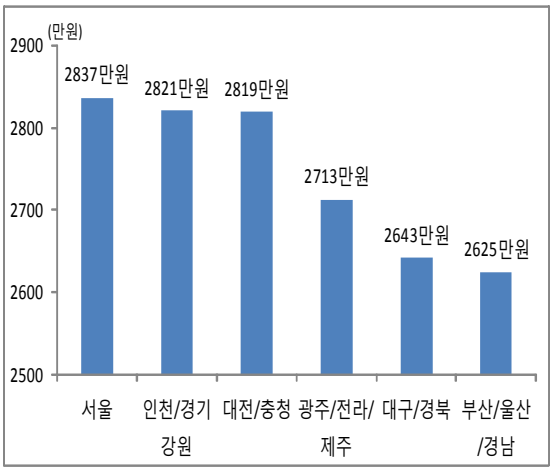
## ○ 대졸 초임 연봉은 약 2,790만원 정도를 원함

- 취업준비자들은 대졸 초임 연봉으로 평균 약 2970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남자의 경우 평균 약 2860만원으로 높은 편이고, 여자의 경우 약 276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남자에 비해 적은 액수를 원하는 편임
  - 지역별로는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지방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원하고 있음

<대졸 초임 희망 연봉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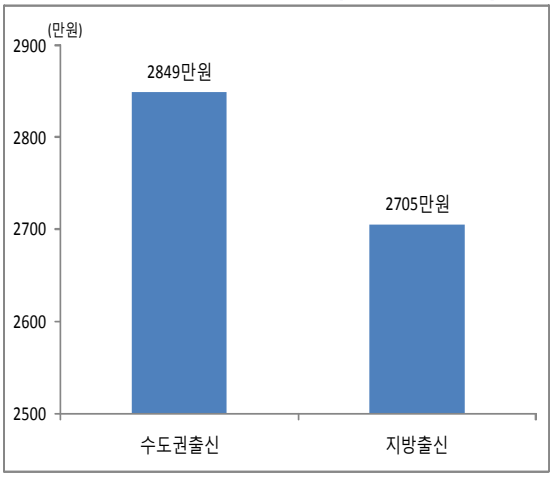

<대졸 초임 희망 연봉(지역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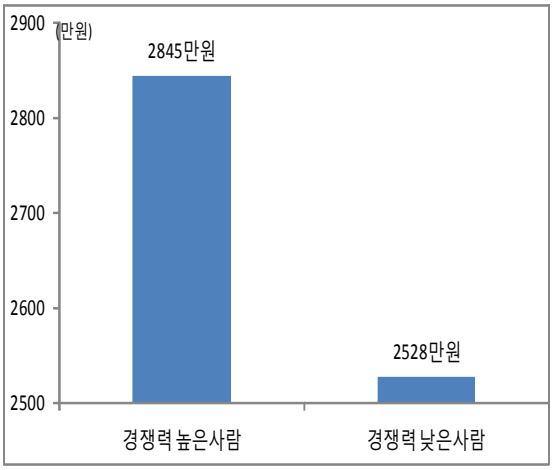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**(출신대학별 비교)**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,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지방대학 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망 연봉이 높은 편임
  - 수도권 출신 대학의 경우 평균 약 2,850만원을 희망하는 반면, 지방 출신 대학의 경우 약 2,710만원으로 나타남
  - 취업경쟁력 인식 수준별로 살펴보면, 자신의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평균 약 2,850만원을 희망하는 반면,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약 2,530만원으로 격차가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남

<대졸 초임 희망 연봉(출신대학별)>




<대졸 초임 희망 연봉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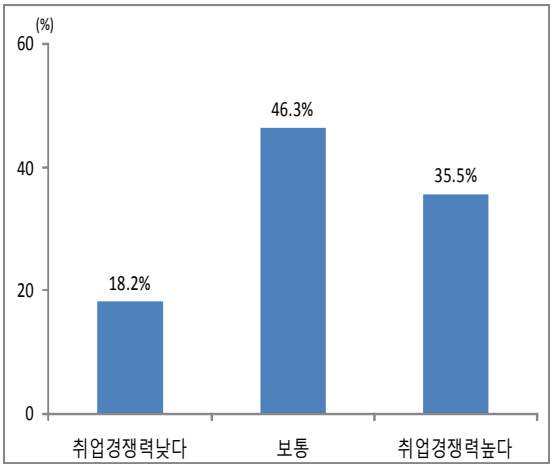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2)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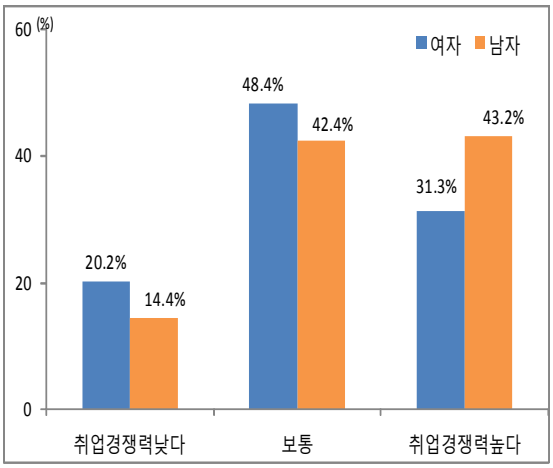
### ○ 자신의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음

- 자신의 취업경쟁력이 낮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보다 높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음
  - 자신의 취업경쟁력이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.2%인 반면,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5.5%임(보통 응답자는 46.3%)
  - 특히, 여자(31.3%)에 비해 남자(43.2%)의 경우 자신의 취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

<자신의 취업경쟁력 인식>




<자신의 취업경쟁력 인식(성별)>
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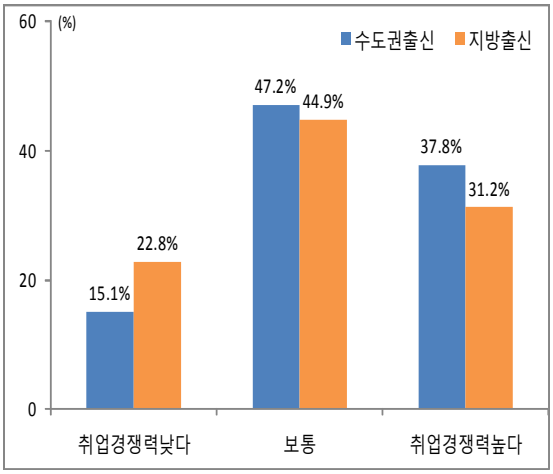
- **(출신대학별 비교)**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지방 대학 출신자에 비해 자신의 취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
  - 취업경쟁력이 높다라고 응답한 수도권 대학 출신자는 37.8%인 반면, 지방대학 출신자는 31.2%임

- **(경제력별 비교)**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취업경쟁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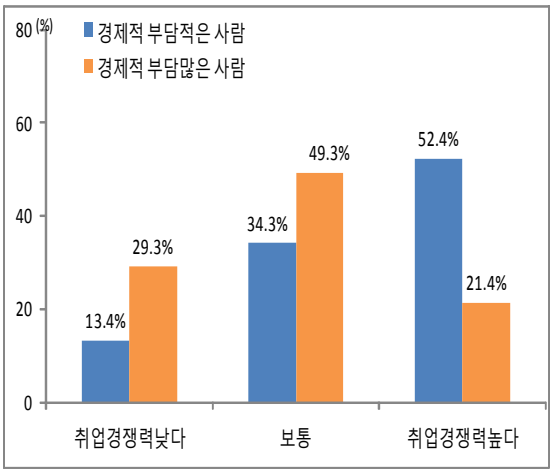
도 높다고 응답함

· 경제적 부담이 적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취업경쟁력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.4%인 반면, 경제적 부담이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21.4%에 불과함

<취업경쟁력 인식(출신대학별)>




<취업경쟁력 인식(경제력별)>
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○ 10명 중 8명이 열악한 근무 환경은 회피하고 싶어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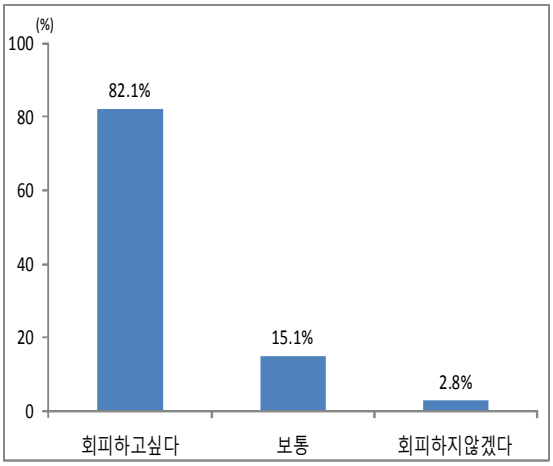
- 취업준비자 10명 중 8명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회피하고 싶어 함

· 열악한 근무 환경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82.1%인 반면, 회피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.8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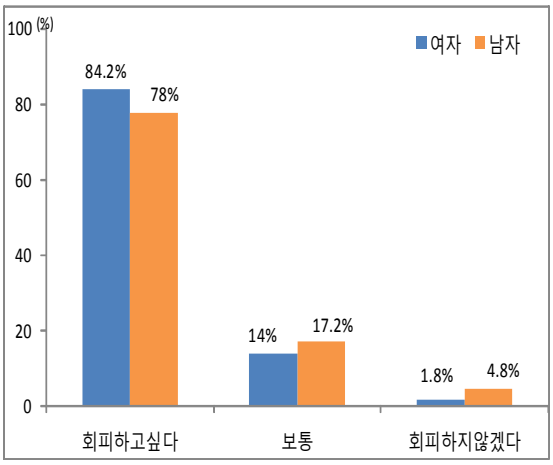
· 성별로 살펴보면, 남자(78%)보다는 여자(84.2%)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회피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

· 특히, 여자의 경우 회피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싶다는 사람이 49.8%(남자의 경우 35.6%)를 차지해 여자 취업준비자들에게 근무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음

<열악한 근무환경 회피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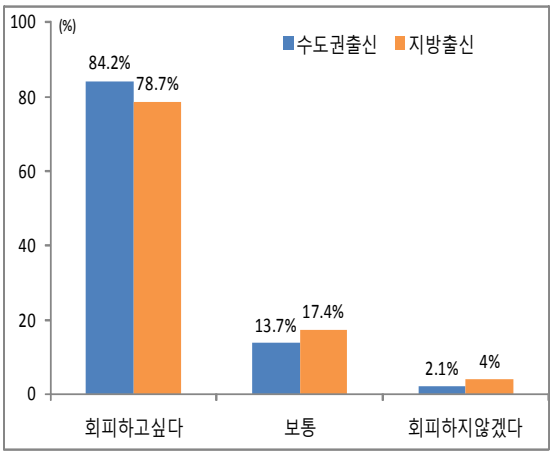

<열악한 근무환경 회피 여부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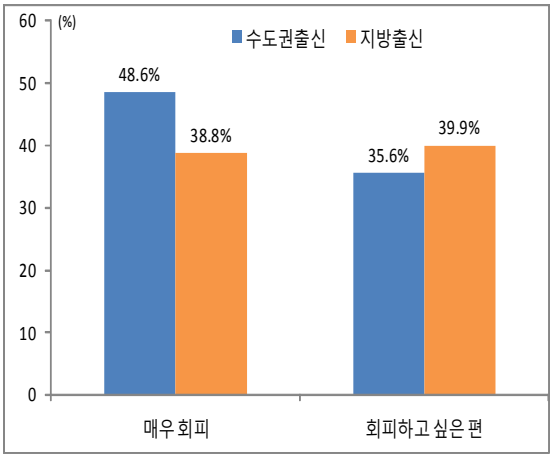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**(출신대학별 비교)** 수도권대학 출신자가 지방대학 출신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의 회피하려는 경향이 큼
  - 지방대학 출신자(78.7%)보다는 수도권대학 출신자(84.2%)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회피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
  - 특히,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경우 회피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싶다는 사람이 48.6%(지방대학 출신자의 경우 38.8%)를 차지해 수도권대학 출신 취업준비자들에게 근무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

<열악한 근무환경 회피 여부>




<열악한 근무환경 회피자 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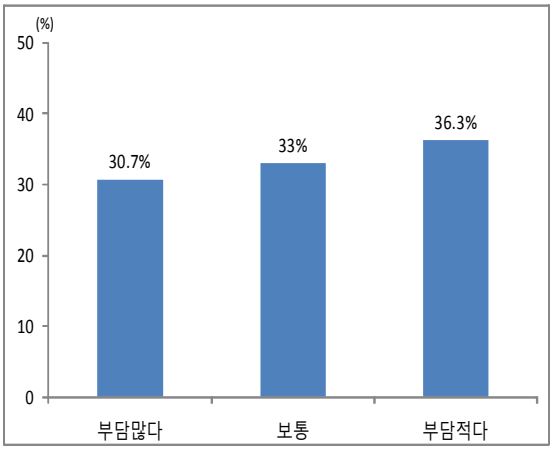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○ 취업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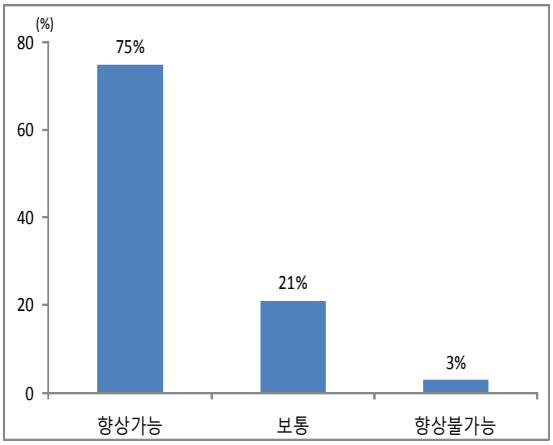
- 취업준비자 중 부모나 집안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사람이 많다는 사람보다 약간 많은 편임
  - 경제적 부담이 적은 사람은 36.3%인 반면,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30.7%
  - 한편, 취업준비를 통해 자신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5%로 상당히 많은 편임

-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취업준비자들은 취업준비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음

<경제적 부담 인식 여부>




<취업경쟁력 향상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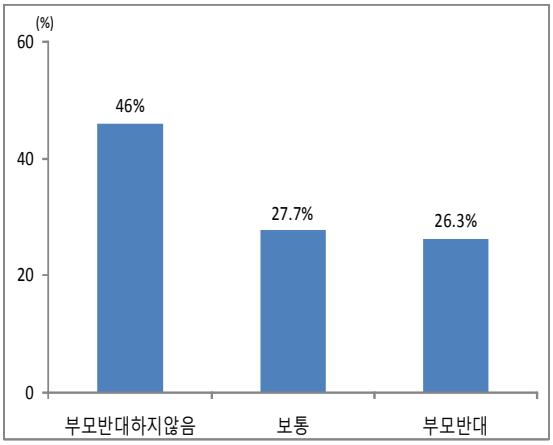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○ 취업준비자는 직장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반대를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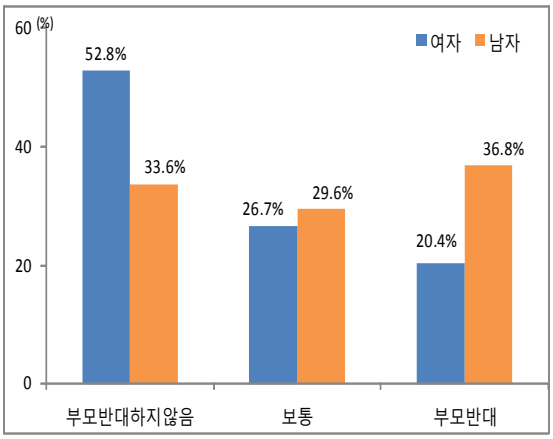
- 청년들의 취업 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
  -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 자신보다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자가 4명 중에 한명인 26.3%에 이름

·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%로 여전히 높지만, 이미 성년인 취업준비자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임

<부모의 반대 여부>




<부모의 반대 여부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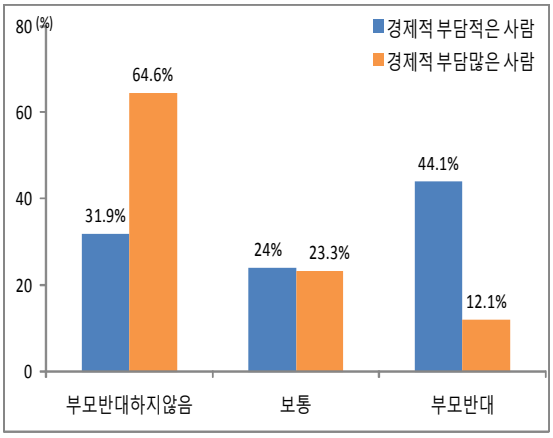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**(경제력별 비교)**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부모의 반대가 심함
  · 남자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36.8%인 반면, 여자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20.4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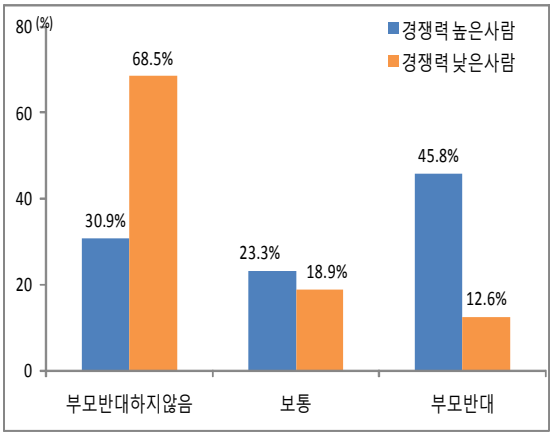
- **(경제력별 비교)**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
  ·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44.1%인 반면, 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2.1%에 불과함
  · 따라서 부모나 집안의 도움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업준비자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직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

- **(취업경쟁력별 비교)**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
  ·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의 반대가 45.8%인 반면,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2.6%에 불과함

<부모의 반대 여부>




<부모의 반대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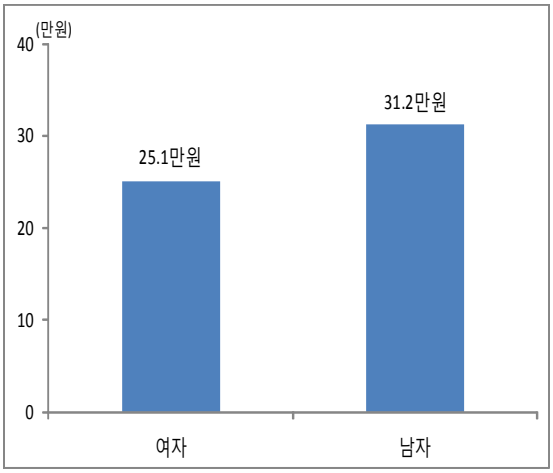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# 3) 취업 준비 및 기타 관련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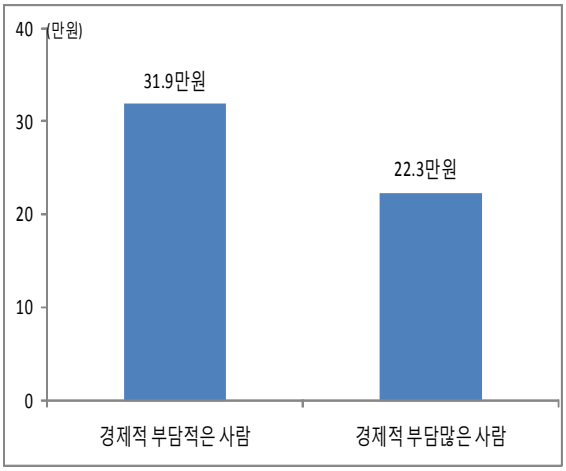
**○ 취업준비를 위해 월평균 약 27만원을 투자**

- 취업준비자들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약 27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여자(25.1만원)보다는 남자(31.2만원)가 취업준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
  - 경제적 부담적은 사람(31.9만원)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(22.3만원)에 비해 비용투자가 많아 경쟁력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 상존

<월평균 취업준비 비용(성별)>




<월평균 취업준비 비용(경제력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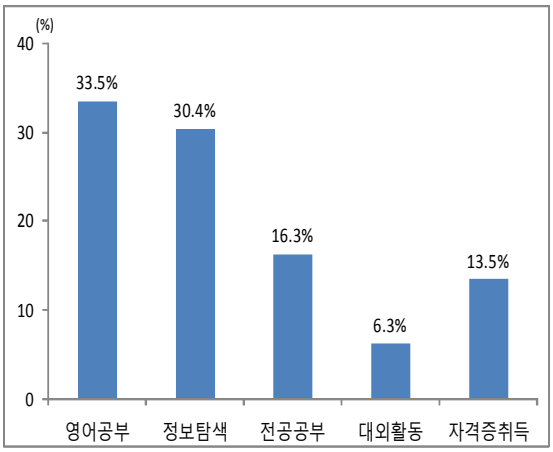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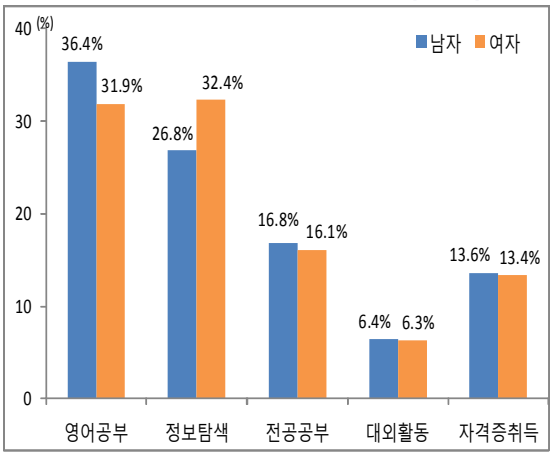
## ○ 영어공부와 취업정보 탐색에 가장 많은 시간 투자

- 취업준비자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영어공부였고, 다음으로 취업정보 탐색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음
  - 영어공부(33.5%), 취업정보 탐색(30.4%), 전공분야 공부(16.3%), 자격증 취득(13.5%), 인턴 등 대외활동(6.3%) 순서로 나타남
  -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영어공부(36.4%), 여자는 취업정보 탐색(32.4%)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

<취직준비 시간 투자 분야>




<취직준비 시간 투자 분야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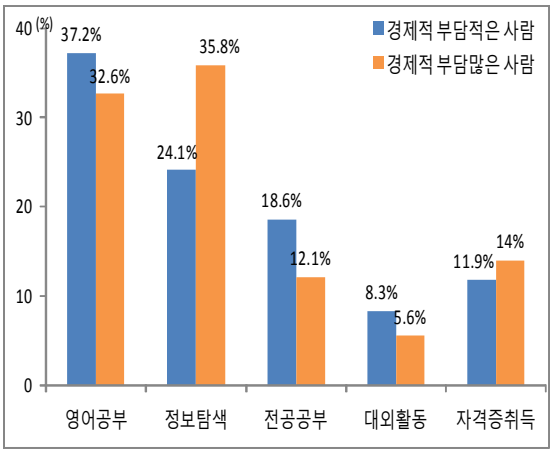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- **(경제력별 비교)**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영어공부인 반면, 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취업정보 탐색에 시간을 투자함
  - 영어공부 분야는 경제적 부담 적은 사람(37.2%), 많은 사람(32.6%)인 반면, 취업정보 탐색 분야는 경제적 부담 적은 사람(24.1%), 많은 사람(35.8%)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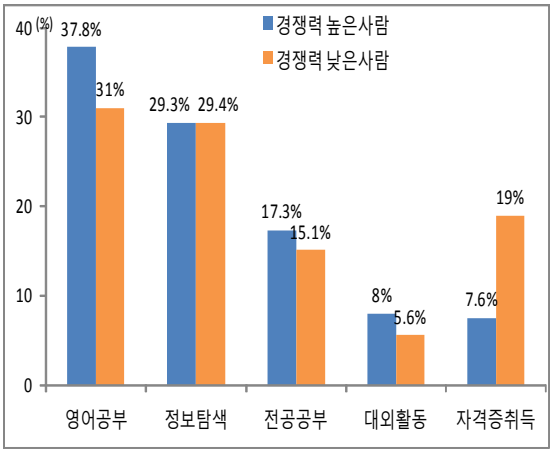
- **(경제력별 비교)**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영어공부인 반면,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취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함

· 자격증 취득 분야는 취업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7.6%인 반면,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9%임

<취직준비 시간 투자 분야>




<취직준비 시간 투자 분야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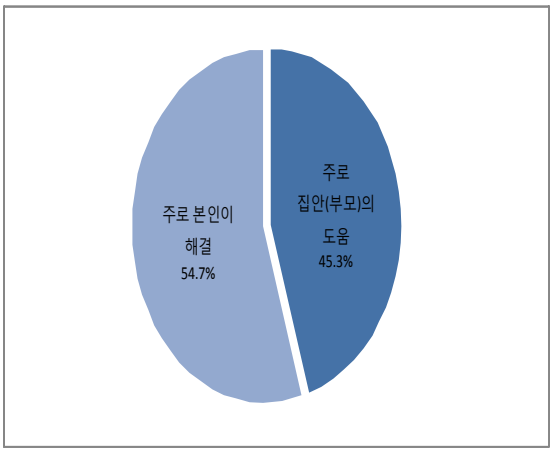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○ 취업준비 자금 조달은 본인 해결이 많으나 부모 도움도 적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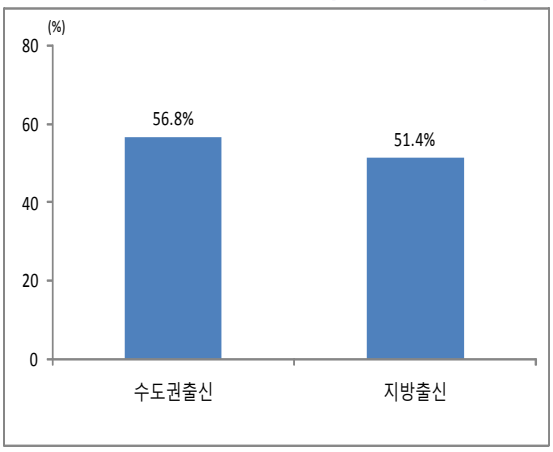
- 취업준비 자금에 대해서는 주로 본인이 해결한다는 의견이 많으나, 부모 도움에 의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

· 주로 본인이 해결한다는 의견이 54.7%인 반면, 주로 집안(부모)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의견도 45.3%에 다다름

<취직준비 자금 조달>




<취직준비 자금 조달(출신대학별)>
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잡코리아

## 3. 시사점

**○ 첫째, 상이한 특성이 보이는 청년층의 세분화를 통한 현미경 고용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함**

- 청년들 중에서 각 나이대별로 또는 출신대학 여부 등에 따라 취업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므로, 각각의 특성에 맞는 현미경 취업 정책이 필요함
  - 단순하게 청년 취업자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인 일자리 강요보다, 청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 - 예를 들어 취업경쟁력이 낮고, 경제력도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우선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 계층을 세분화하여 취업을 유도하는 현미경 정책이 요구

**○ 둘째,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평균화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**

-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청년층을 탓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
  - 이를 위해 일본 등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가 우수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이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
  - 특히,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복지조합을 운영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균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점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함

**○ 셋째,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다리 활성화해야 함**

- 첫직장은 좋은 직장이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강해 취업준비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악순환이 반복됨
  - 이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첫직장으로 좋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
  - 따라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직사다리를 활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

**○ 넷째, 취업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함**

- 열악한 근무 환경을 회피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직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년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
  - 청년 일자리 불일치가 단순히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
  -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의 근무 환경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, 청년들의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함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